

북한 사상무장 수단으로서의 상징전략: 선군정치를 중심으로

곽은경 | 국방정신전력원 전문연구원

| 국문요약 |

북한 정권은 세습·독재의 시스템을 70여 년 가까이 이어오고 있다. ‘아무 탈 없이’ 유지되고 있는 북한체제의 내구력은 어디에 있을까. 북한사회는 정치권력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쉽게 확보하고 사회구성원의 지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상징조작이 일상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체제가 형성·유지되고 권력이 세습·강화되는 작동 원리를 북한의 상징정치와 전략, 그 하위담론에서 도출하였다. 북한체제의 다양한 상징전략 중 ‘선군’은 이원론적 대립구도를 동원함으로써 직면한 현실의 불안을 가라앉히고자 하는 전략이다. 선군의 가치체계는 외부 유해한 것의 유입을 차단하고 내부 결속을 도모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되며, 이는 여타 전체주의체제가 빈번히 실천하는 ‘경계짓기의 상징전략’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선군정치는 김정일시대에 국한된 전략이 아니라 북한 항일무장투쟁 혁명전통의 한 줄기를 이루며 김정은시대에서도 재생산된다. 이에 본 연구는 선군정치가 북한 체제를 결속하는 상징전략으로서 어떠한 기능을 하고 효과는 어떠한지, 현대의 북한이 무너질 듯 무너지지 않는 요인을 先軍의 상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주제어 | 상징정치, 상징전략, 북한 사상무장, 선군정치, 상징조작

1. 들어가며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지 4년 7개월이 지났다. 급변사태 등 변수가 없다면 이듬해 6년차로 접어든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 정권은 세습과 독재의 시스템을 70여 년 가까이 이어오고 있다. ‘아무 탈 없이’ 유지되고 있는 북한체제의 내구력은 어디에 있을까. 북한은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전체주의 체제로, 정치권력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쉽게 확보하고 사회구성원의 지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상징조작’이 일상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체제가 형성·유지되고 권력이 세습·강화되는 작동 원리를, 즉 체제 내구력의 근거를 북한의 상징정치와 전략, 그 하위담론에서 찾고자 하였다. 북한의 상징정치 및 하위 전략의 대표적 사례로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의 선군정치가 있다. 김정일의 ‘선군’은 김일성의 ‘주체’를 이어받은 김정일시대의 정치언어로, 북한체제의 정치 역사를 살펴보면 양자는 맥락을 같이 한다. 즉 내용은 그대로인 채 표면의 단어만 바뀐 시대별 정치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레토릭의 정치는 지배권력이 가지고 있는 정치 입장을 사회 전반에 유연하게 스며들게 한다.

소비에트정권은 1917년 10월혁명 이후 사회 주체로 부상한 노동자들에게 상징의 정치를 구사하였다. 노동자들에게는 복잡한 언어보다 간결한 상징체가 정치적으로 유용하게 작동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나의 사례로 ‘스타하노프(Stakhanov)’ 상징은 사회주의경제에 ‘경쟁’ 개념을 자연스럽게 도입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다. 볼셰비키는 5시간 45분 만에 102톤의 석탄을 채굴한 광부 스타하노프를 작업 목표를 초과 달성한 고효율의 노동자로 선정하고 모범사례로 선전하였다. 스타하노프 상징과 이의 산업 전 부문에 대한 확산으로, 소련 경제는 노동생산성이 이전에 비해 82% 향상되는 등¹⁾ 급성장 할 수 있었다.

소비에트 인민을 자발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그들

1) 제1차 경제건설 5개년계획 기간(1929~1932)에 사회주의적 경쟁은 돌격노동운동(우다르니 체스트보)으로 나타났다. 돌격노동자 스타하노프는 그 운동의 살아있는 상징이 됐다. 제2차 5개년계획은 노동의 질적 향상의 측면에서 획기적 성공을 거두었다. 노동생산성은 82% 향상됐고, 이를 가능케 했던 주된 요인이 스타하노프 운동이었다. (이완중 2010, 195-197)

의 정치·경제적 동원을 가능케 한 것은 볼셰비키의 정치 이론보다 볼셰비키가 내세운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기 이전에 감성적 존재로, 특히 대중은 사회를 지배하는 용어와 상징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소련체제에서 소비에트가 레닌을 축으로 많은 상징들을 생산하여 전략적으로 사용하였다면, 북한체제에서는 3김(김일성-김정일-김정은) 자체가 하나의 상징으로 구현되고 있다. 각종 구호 등의 언어상징은 정치체제가 의도하는 바를 간접적으로 표명하고 사회 구성원들에게 실천행위를 요구한다.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라는 링컨(A. Lincoln)의 게티스버그(Gettysburg) 연설은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상징이다. 이 상징체계는 민주주의체제의 구성원들에게 ‘개인의 자유에 대한 신성불가침권’이라는 상징을 부여한다.

어떤 정치체제에서든지 개인을 해당 정치질서에 유입시키기 위한 상징이 존재한다. 이러한 정치적 상징은 담론으로, 레토릭으로, 또는 가시적 물체로 생산되어 권력작용을 한다. 정치적 상징체는 북한정권이 유지될 수 있는 구심점이다. 북한체제의 사상을 무장하는 전략은 다양하다. 다양한 정치전략 중 ‘선군정치’는 북한의 체제 결속을 위한 상징의 정치전략으로 운용되고 있다. 선군의 가치체계는 세계를 선과 악, 친구와 적, 진리와 허위로 구분하는 이원론적 대립구도를 동원함으로써 직면한 현실의 불안을 가라앉히고자 한다. 북한이 정권 수립 초창기부터 적으로 삼아온 제국주의, 자본주의 세력을 인민에게 다시금 주지시키고, 적들로부터 인민을 지키는 주체세력을 ‘군’으로 상징한 것이다. 그러나 이면을 들여다보면 선군정치는 외부 유입을 차단하고 내부 결속을 도모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되며, 이는 여타 전체주의체제가 빈번히 실천하는 ‘경계짓기의 상징전략’²⁾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북한 체제 내구력의 근거는 크게 북한정권의 물리적 통제와 북한 주민들의 자발적 동의로 나뉘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이 붕괴하지 않고 유지될 수

2) 히틀러의 나치즘은 ‘민족의 동지(Volksgenosse)’와 ‘민족이방인(Volksfremde)’이라는 이분법적·배타적 위계질서에 근거를 둔 상징체계를 활용한다. ‘민족공동체(Volksgemeinschaft)’ 상징은 내부의 통합과 외부에 대한 배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 (조현수 2010, 211-212)

있는 까닭을 자발적 동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인민들의 생각과 행동, 가치관, 신념체계가 북한정권이 고수하는 상징정치와 하위 전략에 의해 형성되는데, 이러한 북한 정치권력의 정치사상을 인민에게 주입·세뇌시켜 자발적으로 복종케 하는 원리인 것이다. 여러 상징전략 중 특히 선군정치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선군정치가 김정일시대에 국한된 전략이 아니라 북한 항일무장투쟁 혁명전통의 한 줄기를 이루며 김정은시대에서도 재생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군정치가 북한 체제를 결속하는 상징전략으로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그 효과는 어떠한지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선군정치와 이를 통한 상징전략에 대한 이해는 북한이 의도하지 않는 개방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그로 인한 균열이 기대만큼 크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줄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의거하여 다음의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북한은 ‘왜’ 상징을 사용하는가. 북한 정치권력은 세습 및 독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들만의 이데올로기를 구축하고, 하위 정치담론의 구체적 방법으로 상징을 활용하고 있다. 정치에서 상징은 지배권력과 피지배층인 사회 구성원 간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중요한 점은 상징의 정치가 정치권력의 의도를 표면에 노출시키지 않으면서도 체제에 대한 순응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은 상징을 그들이 의도한 특정 반응을 유발하기 위한—체제와 사상을 터득시키기 위한—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그렇다면 북한은 상징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상징 체계는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정보를 전달하거나 설득을 할 수 있고 때로는 정치적, 종교적 용도로 활용되기도 한다. 북한의 경우 상징체계가 정치행위를 위한 선전과 신화의 용도로 활용되며 이는 1990년대 대내외 상황과 맞물려 ‘선군’이라는 상징으로 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선군정치의 상징성은 ‘무엇’인가. 선군정치는 북한을 대외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자체안보수단으로 기능한다. 1990년대 정치·경제적 위기에서 비롯된 인민의 패배주의를 극복할 상징전략으로써 등장한 선군정치는 국제적 고립과 경제 위기에서 야기되는 자기 존립에 대한 위협을 희석시키기 위해 선택되었다. 북한은 균을 위기관리의 모범집단으로 상징하였는데 이는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변질되어 권력 세습과 독재 체제의 정치의 정당성을 강제로 이끌어내고 있다. 선군정치는 기본적으로 김정일시대

생성된 국가비전을 상징하며 이는 김정은대의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이어지고 있다.

헝가리 학자 이반 볼쥬예쉬(Ivan Völgyes)는 사회주의국가의 정치사회화 과정의 수단으로 두 가지 장치를 언급하였다. 제도와 환경의 장치가 그것이다.³⁾ 본 논문이 제시하는 몇 가지 변수 중 ‘군’은 정치사회화 임무를 수행하는 2차 집단, 즉 제도상의 장치가 되고 ‘상징조작’은 정치사회화의 환경 장치가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인 선군정치의 상징전략의 측면을 살펴보는 기본적 논리가 여기에 있다. ‘군대의 기질과 전투력에 의거하여 체제를 보위하고 사회를 건설해 나가는’ 집단에서 군이 국사(國事)의 제1이 되는 상징전략은 군 내부뿐만 아니라 군의 정신을 체득할 인민과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 전체를 ‘수령=군대=국가=인민’의 정치 철학으로 스며들게 한다. 조선인민군이 조선노동당과의 권력 다툼 한가운데 있는 정치 기관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체제 보위를 위해 존재하는 양식, 수령유일지도체제를 지탱해 주는 정치 자산 그 자체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선행 연구들이 추구해 왔던 선군정치 이후 당-군 세력 다툼, 당 및 군 관련 인사 서열의 문제 등이 북한 정치 중 정치권력 상부에 있는 엘리트 내부에 관한 것이었다면, 본 연구는 선군정치를 북한 정치역사의 한 축으로 바라보고 있다.

II. 북한 사상무장 수단으로서의 상징전략

‘상징’은 인간의 이성적 인식을 넘어 존재하는 어떤 막연한 미지의 것, 볼 수 없는 것을 ‘이미지’라는 매개체를 통해 전달한다. 이때 표면에 존재하는 이미지에 어떤 특수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이 숨은 의미는 상징을 전달하고자

3) Ivan Völgyes는 그의 저서 “Political Socialization in Eastern Europe(1975)”를 통해 제도적 장치는 가정, 동료집단 등의 1차 집단과 국가 주도로 정치사회화 임무를 수행하는 당, 청년집단, 학교, 노동단체, 군부 등 2차 집단이 있다. 한편 환경적 장치에는 대중매체와 상징조작, 군중동원과 각종 구호 등이 있다. (신광민 2003, 24-26)

하는 창조자에 의해 의도된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상징 사례인 언어는 상징 주체(창조자)에 의해 구축된 표현수단(언어)이 특정 의미들을 상징적으로 전달하는 의미의 전달체계이다. 상징체계로서의 언어는 사전 정의와 사회 분위기, 사상, 집단의 사고와 감정, 대상에 대한 지각 등으로 구성된다.

1. 상징의 사회적 기능

특정 사회 혹은 문화권에는 공용어가 있다. 이 공용어는 그것이 제정된 기원, 즉 당시의 사회 상황과 경험 및 가치들을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공용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이다. 지방 사투리를 배제하고 서울말을 공식석상에서 사용해야 할 언어의 범주에 넣고 있는데, 이는 수도 서울과 그 안에서 이뤄지는 언어행위들이 국가 공식어로 간주되어야 함을 보여 준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말’이라 함은 인간의 언어가 어느 정도 균질적이어야 한다는 관념을 보여준다. ‘대한민국 표준어’의 언어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은 ‘표준어’라는 상징체계를 통해 정치·경제의 의사소통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또한 공용어는 사회구성원들에게 유일한 공식어로 강제된다.

18세기 프랑스혁명 당시까지 언어는 통합되지 않고 다양한 방언들이 뒤섞여 있었다. 사투리와 파리의 교양 있는 계층이 사용하는 소위 ‘혁명적 인텔리겐치아의 프랑스어’ 간의 갈등은 권력을 둘러싼 갈등이며, 갈등의 쟁점은 언어 사용자의 정신 구조를 개혁하는 데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⁴⁾ 언어의 생산은 그저 소통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등장한 권력의 정치용어들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 우리말을 쓰지 못하게 하고 창씨개명을 강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언어상징체계는 언어 사용자의 정신구조에 영향을 미치며, 언어의 헤게모니를 차지한 집단에 권력을 부여

4) 언어를 하나의 방법으로 보는 쿤디악의 이론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언어를 개혁하는 것, 낡은 사회와 연결된 용법들을 언어에서 몰아내는 것, 정화된 언어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정확되고 순수해진 사고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한다. 언어상징체계를 통해 사용자들의 정신 구조를 개혁하거나 장악할 수 있다. 즉, 사회는 상징 주체가 건설한 상징적 질서를 통해 구축된다. 상징은 인간이 개별 객체에서 벗어나 집단·조직·사회와 연결되는 고리로 기능한다. 따라서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가 공유하는 상징은 집단적 소통구조를 구축하고 그 구조 안에서 행해지는 여러 행동을 설명해준다.

상징은 대상을 바라보는 틀이 되며, 규정된 틀을 통해 대상이 속한 세계를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군자(매화·난초·국화·대나무)는 충성심과 절개, 지조와 고결함을 상징하는 대표적 소재이다. 사군자(상징)가 그려진 문인화(대상)를 감상함으로써 조선시대 선비정신(세계관)을 엿볼 수 있다. 상징은 동시대에 흩어져 있는 개인뿐 아니라 서로 다른 시간을 영유하고 있는 성원들 간에 연결고리를 제공하고, 산재된 의사를 의미 있는 것으로 변환·소통시켜준다. 무엇보다도 상징은 인간 정신구조의 중요한 구성요소이자 사회생활의 원동력이다. 상징은 해당 사회의 가치, 감정, 이념 등의 에너지가 반영된 것으로 사회적 행위의 동기를 부여하는 힘이 된다. 나아가 상징은 의미작용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이미지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정서적으로 결속시키기도 한다. 이는 정서적으로 결속된 사람들이 특정한 가치체계를 신봉하거나 집단 행위를 하도록 이끌어내는 동기 요인이 된다. 상징의 개념을 인간사회와 결부시켜 규정하자면, 대상을 ‘어떠한 방식으로 바라보자’는 태도를 유발하는 기제이자 대상의 의미를 다양하고 모호하게 확장시킬 수 있는 도구이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청자에 의해 혹은 사용되는 맥락에 의해 의미가 달라지는 가치체계라고 할 수 있겠다.

2. 사회주의체제의 상징전략

정치상징은 민주주의체제보다 권위주의체제일수록 효과가 두드러진다. 전체주의체제의 근본 속성인 프로파간다가 정치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이 ‘선전’은 ‘상징’으로써 표출되기 때문이다. 왕조정치 시대에서 군주의 권력을 합리화·신성화하는 방편으로써의 상징조작이 통치의 중요한 측면을 담당하던 것을 고려하면,⁵⁾ 권위주의체제에서 상징전략은 필수불가결한 통치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

권위주의 성향이 강한 체제는 정책과정의 폐쇄성이 강하며 참여와 비판이 배제되기 때문이다. 정책과정에서 국민의 참여가 배제되었다는 사실은 국민의 정치적 지지를 얻지 못했음을 뜻하기도 하는데, 정당성 위기를 낳지 않기 위해 다른 방면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표면적이고 가시적인 상징전략들을 활용함으로써 정치 내부의 위기를 메꾸게 된다.

정치상징은 슬로건, 모토 등 비형상적인 것과 그림, 동상, 건물 등 형상적인 것 등 다양한 상징 매체를 통해 정치적 관점과 주장 등을 전달하는 행위와 그 결과를 말한다. 사회주의체제 연구에서 상징은 선전과 선동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주요한 연구대상으로 제시되어 왔다. 사회주의체제는 자본주의체제와 달리 물질적 인센티브로 행동의 유인을 제공하지 않는다. 사회주의체제는 정치도덕적 인센티브를 구성원에게 부여함으로써 그들의 행위를 이끌어내는데 이 과정에서 선전과 선동의 정치전략이 활용된다. 특히 선전은 정치상징과 직결된다. 정치의 상징체계는 많은 사회주의체제 국가들이 지속될 수 있었던 작동원리로 활용되어 왔으며, 따라서 상징체계에 대한 이해는 체제 유지 동력 및 체제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비단 사회주의체제만이 아니라 한 체제의 특정한 상징체계는 그 체제가 지향하는 정치 목표를 이해할 수 있고 그러한 정치 이념이 구성원에 어떻게 내면화되는지 파악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스탈린 혹은 김일성, 또는 박정희 등 정치지도자에 대한 인정과 신뢰를 담보하는 것은 그를 이해하고 그에게 부여된 상징의 이미지를 내면화하는 심리 과정과 연관된다. 즉 정치지도자는 권력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과정에서 피치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내면화 틀을 만들어야 하며 이것은 곧 특정한 상징체계가 된다.

예를 들어 집단적으로 거행되는 대규모의 행사는 국민의 사기와 통합 의식을 제고하고 국민의 관심을 강력하게 자극시켜 열광하도록 만든다. 1930년대 소비

5) 고대 및 근대 왕조체제의 최고권력자는 민중들의 자신에 대한 존경과 복종, 지지를 획득하고 또한 군주 자신과 왕실의 특출한 우월성·비범성을 확산하기 위한 방법을 그 어떤 시기보다 고민하였다. 민중들의 심리적 복종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군주가 일반의 범인들과 다른 우월적인 무언가, 하늘이 내린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음을 설득력 있게 과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문재윤 2008, 41-42)

에트 지도부는 준군사 성격의 퍼레이드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유니폼과 고정된 자리, 한 치의 오차도 없는 행진을 통해 전체가 하나인 듯 움직인다(박원용 2013, 402). 이러한 행위는 퍼레이드 참가자들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국민, 제3국의 외부 관찰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광장 등의 대규모 공공장소를 조성하거나 가시화되는 상징물을 건립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위엄성을 달성하며 이를 통해 국민을 정치 부문으로 응집시키기도 한다. 이처럼 상징전략은 통치 집단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으며 정치질서를 유지하는 데 유용하다. 또한 정치체제의 가치를 확인하는 데 긴요하게 사용된다. 국민들의 상징에 대한 애착은 체제 유지의 정도를 판단하는 척도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국가 위기 발생시 내부의 응집력을 강화할 수 있다. 특히 ‘nation(민족)’ 상징이 표방되는 경우가 많다. 타자에게 ‘적’이라는 상징을 부여하여 반대세력을 생성하고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상징을 강력하게 부각함으로써 국민적 지지와 정치적 동원을 얻을 수 있다.

3. 북한의 상징전략

북한도 위기에 대응하는 하나의 전략으로써 가상의 적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정치용어들을 구성하며 공동의 기억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정서적 토대를 바탕으로 함축적인 상징—이데올로기·신념·태도·성인·악인·적·역사·사건 등으로 존재되는 상징—을 생성하고 이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감각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언어적 표현, 조형물 등으로 표현한다. 의미가 주어지지 않은 어떤 날 것에 상징 주체가 상징을 부여함으로써 객체에게 다양하고 모호하며 이중적인 의미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객체, 즉 집단 구성원들의 기억이 새로이 규정되는데, 알박스(M. Halbwachs)에 의하면 결국 집단의 기억은 ‘주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개념이다(정호기 2000, 132). 일례로 북한은 신화를 줄곧 사용해 왔다. 신화는 내용의 진실 여부를 떠나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는데 본질적 특성이 있는데, 북한은 신화라는 상징적 표현을 통해 최고지도자를 찬양함으로써 체제질서를 규정하고 사회구성원들의 헌신을 이끌어 냈다.

또한 신화 창조 이후 그에 걸맞은 장소, 미술·음악작품 등을 생산해냄으로써 상징성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북한에서 예술은 문화의 일부가 아니라 정치의 하위 분야에 속해 있다. 시대사조와 통치 이데올로기, 체제와 지도자 우상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작품들이 선도적이다. 예를 들어 풍경화가 묘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소재는 김일성 혁명사적지와 전적지들이며(박계리 2011, 47), 집집마다 걸려있는 김일성·김정일 초상화는 존재 자체로 가내 안녕과 평화를 제공한다. 또한 인민들이 옷에 다는 배지는 ‘최고지도자가 배지를 단 인민들과 항상 함께 존재한다’는 생각을 심어준다(Lim, Jae-Cheon 2015, 32).

언어상징의 사례로 슬로건, 즉 구호는 지향 목표를 간결하게 정식화한 것으로 공산주의체제에서 선전·선동의 주무기로 사용된다. 북한 조선말대사전은 구호를 ‘대중을 조직동원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상, 과업 요구 등을 간결한 형식으로 나타낸 호소 또는 그것을 표현한 글’로 정의하고 있으며(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1992, 322), 다양한 형태로 제작하여 정치교화의 매체로써 이용하고 있다. 북한은 2012년 평양시 통일거리에 “인민군대는 선군시대의 혁명투사를 길러내는 혁명학교이다”라는 구호를 간판으로 세워 정치사회화에 군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한편 2009년 개정헌법에서는 ‘선군사상’을 핵심 이념으로 내세웠다. 체제의 근간을 군부로 삼고 모든 자원을 핵·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군사력 증강에 집중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국가 최고법 헌법이 가지는 상징성으로 표출한 것이다. 또한 2012년 수정된 노동당 규약은 ‘선군정치’ 표현을 극대화함으로써 선군의 이념을 북한체제의 동력으로 제시하였다. 제7차 당대회 결정서에서 3김에 대한 호칭이 달라진 것도 상징의 한 축이다. 김정은정권은 결정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결산)에 대하여”에서 김일성 주석을 ‘위대한 수령’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탁월한 수령’으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최고영도자’로 칭하였다(로동신문 16/05/09). 이는 김일성·김정일을 각각 ‘위대하고’, ‘탁월한’ 수령으로 모시고 김정은 자신은 수령들의 뜻을 이어받아 북한 사회를 영도하는 최고지도자의 지위를 누리겠다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Ⅲ. 북한 사상무장 수단으로서의 선군정치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인민군대의 혁명적기질과 전투력에 의거하여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보위하고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혁명령도방식이며 사회주의정치방식”(로동신문 06/08/25)인 선군정치는 군사 우선 정책을 실행한다는 정치 의지이자 위기극복에 군대를 활용한다는 적극적인 표명이다. 선군의 개념이 김정일의 통치언어로 사후 정립된 배경에는 당시 대내외 정치경제 상황이 맞물려 있다. 1990년대 사회주의권 붕괴와 제1차 북핵위기 등에서 오는 정치적 압박을 사상통제로 극복하고자 하였다. 위기관리를 위해 군대를 활용한 감시를 강화함으로써 내부 쿠데타와 외부 위협으로부터 최고지도자의 권력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또한 군대를 사상의 모범집단으로 부각시켜 인민들에게 군인의 정신과 문화를 교양하였다. 체제 보위를 위한 군력 강화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점은 북한이 사상·이념적으로 불안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달리 말하면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서 체제유지의 최후 보루인 군대를 앞세움으로써 국방이 정치 전반에 우선하는 것을 정당화할 분위기를 형성했다고 할 수 있겠다.

1. 선군정치의 역사

‘先軍’ 용어는 1997년 10월 7일 조선중앙방송 정론과 동년 12월 12일 노동신문을 통해 처음 등장하였다. ‘선군정치’는 1998년 5월 26일 노동신문에서 ‘당중심 위기관리를 보완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한 새로운 위기관리방식’으로 규정되었다. 이후 1999년 6월 16일 노동신문과 근로자 공동논설을 통해 용어가 정식 제시되고 개념이 규정되었으며 이론적 체계화 시도가 있었다. 2001년 12월 15일 노동신문·근로자 공동논설은 선군의 시작이 1995년 1월 1일 다박술 중대 현지 지도에 있다고 하는데, “그 나날에 우린 다 몰랐다. 오직 한 분 장군님께서만이 알고 계셨다”고 함으로써 선군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사후 규정된 것임

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2003년 3월 21일 노동신문 편집국 논설은 선군사상을 ‘군사선행의 사상이자 군대를 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 내세우는 전략전술’이라고 정의 내렸다.

김정일 시기 북한은 국방위원장이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유일지배체제로서 비상위기관리체제의 제도화와 일상화를 통해 군사국가를 지향하였다.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에서의 헌법 개정을 살펴보면 국방위원회가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으로 명시됨으로써 최고통치기관으로, 국방위원장이 최고 통치권자이자 사실상의 국가원수로 났음을 알 수 있다. 이후 11년 만인 200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회의의 헌법 개정(9차 개헌)을 보면, 국방위원장에 관한 절을 신설함으로써 국방위원장의 절대 권력을 법제화하였다. 실질적 통치권을 헌법상 권력으로 규정한 것이다. 또한 국방위원회가 최고‘군사’지도기관에서 최고‘국방’지도기관으로 재규정, 군사관련 업무를 넘어 국가의 중요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으로 권한이 강화되었다.⁶⁾ 가장 중요한 점은 선군사상을 주체사상과 함께 통치 이데올로기로 승격시켰다는 점이다. 이는 김정일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고 김정일의 선군을 주체사상과 함께 북한 제1의 통치 슬로건으로 삼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선군, 즉 국방을 우선하는 군국가국의 성격이 헌법으로 명문화되었다는 점인데, 제도상 군사국가의 상징성을 각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선군의 정치전략은 김정일시기 이전부터 축적되어 왔다.⁷⁾ 클레어(Michael T. Klare)는 ‘군사주의(militarism)’를 ‘한 국가의 군사기구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획득하고, 문화·교육·미디어·정치·경제 등 전반 분야에서 군사적 목표(전쟁 준비, 무기체계의 획득, 군수산업의 발전)와 군사적 가치(권위의 중앙 집중, 계층화, 훈육과 일체화, 호전성 및 이민족 혐오)가 우세해지는

6) 1992년 사회주의헌법에서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으로 규정, 1998년 헌법에서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인 국방관리기관으로 규정, 2009년 헌법에서 최고국방지도기관으로 규정되었다. (이종철 2011, 50)

7) 노동신문 편집국 논설에서는 김정일의 선군정치와 선군사상에 관한 이론이 김일성이 창시한 군사중시사상과 선군혁명영도의 전통에 역사적 뿌리를 두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로동신문 02/07/31)

경향'으로 정의하는데(Klare 1980, 36), 1960년대 북한 내부에 확산되던 수정주의 사조를 차단하고 수령의 유일권력을 확고히 하기 위해 군인들의 정치사상적 무장에 관심을 기울인 점에서⁸⁾ 김일성의 군사주의를 발견할 수 있다. 김일성은 당시 중·소 갈등의 위기로부터 벗어나고 사회주의권의 지도자적 위치를 구축하기 위해 군대 내 종파세력을 청산하고 군 권력의 중심에 김일성 자신을 위치시켰다. 전체주의, 왕권주의 성향을 지닌 수령유일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기획한 통치유형으로서의 군사주의는 강력한 체제 보위 수단이자 북한만의 정치적 상징 수단이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김정일대(代)로 이어져 현재의 불만—체제 붕괴의 위협, 경제적 위기—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자리 잡아 군을 재생산하는 구조를 이루게 된다. 김정일시기의 군사주의는 선군이라는 통치언어로 형성되어 체제 보위의 1차적 목적과 경제위기 극복의 주체, 문화·사상·정서·도덕적 풍모의 모범이라는 부수적 목적을 추구한다.

2. 북한 사상무장을 위한 상징전략: 선군정치

김일성의 주체사상은 김정일의 선군사상으로 계승, 김정일의 선군사상은 다시 김정은으로 이어지고 있다. “선군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해나가는 여기에 온 사회 주체사상화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길이 있다.”(로동신문 04/02/19)라고 강조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온 사회의 선군사상의 일색화’는 김정일의 김일성 후계에 관한 안정화 작업이다.⁹⁾ 이를 3세대 승계에 적용해보면, 선군정치 이론화(‘김정일주의’) 및 심

8) 1962년 경제·국방건설 병진노선을 추진하는 데에 본격적인 군사력 건설보다 군인들의 ‘정치사상적 무장’에 더 관심을 기울인 점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일성은 제4기 5차 전원회의가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63년 2월 8일 인민군 정치부 간부 및 현지 당, 정권기관 일군들에게 한 연설에서, 군사력 증강에 관한 내용보다는 ‘계급적 정치교양 사업’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김성주 2015, 290-291)

9) 또한 ‘백두의 선군전통을 계승한 우리 군’은 선군을 떠나 혁명의 어제와 오늘, 내일에 대해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로동신문 02/03/20)

화·발전 작업은 김정은의 김정일 권력 승계 안정화로 대칭시켜 이해할 수 있다. 김정은은 2012년 당대표자회에서 노동당의 공식 지도 사상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규정하고 김정일의 선군사상을 ‘김정일주의’로 격상시켰다. 이는 3대 세습의 사상적 정통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김정은만의 새로운 실천이데올로기 형성을 위한 토대 구축의 작업으로 볼 수 있다.

‘선군’이 지닌 의미와 그것이 목표하는 궁극적인 의도는 김일성의 ‘주체’와 동일한 맥락에서 작동한다. 북한의 통치언어는 지도자가 세습되면서 가시적으로는 변화되어 왔지만 내재된 특징은 ‘항일빨치산활동’이라는 역사 왜곡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북한의 위대한 과거로 끊임없이 재생산함으로써¹⁰⁾ 주체와 선군, 김정은의 새로운 시대담론은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끊지 못한 채 고착되고 있는 것이다. 선군은 북한의 군사행위의 기억과 상징을 담고 있다. 세습, 일인독재, 전체주의 속성을 지닌 북한은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가기 위해 과거의 ‘영광스러운’ 기억에 대해 끊임없이 회상한다.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상징작업으로써 주체와 선군이 형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북한 통치담론 형성에서 회고적 성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은 북한 역사의 기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는 선군이 특정 시대의 정치언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역사를 관통하는 일부분으로 작동함을 뜻한다. 군대를 통해 사람들의 의식을 개조하고, 군대에서 습득한 조직화된 개체로서의 규범을 군중에게 교양해야 한다는 김일성의 언급(김일성 1981)은 군이 북한의 정치사회화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함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생각은 현대 북한군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군은 최고지도자 우상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신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가치관이 형성되는 청년기에 입대하여 10여 년 간 이뤄지는 집중 세뇌 교육은 그 효과성이 극대화된다. 군대라는 특수한 공간은 북한당국이 그들의 목적을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는 매개체로 기능하게 된다. 이는 북한이 왜 ‘군’을 혁명전사의

10) 북한의 서술양식은 한마디로 소급변조(retrospective falsification)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이야기를 윤색하면서 거슬리는 부분은 제외하고 좋은 부분에 역점을 두어 개작하는 일을 말한다. 이렇게 왜곡된 내용의 이야기는 놀라운 논리적 설득력이 부여되어 기억된다. (서유석 2008,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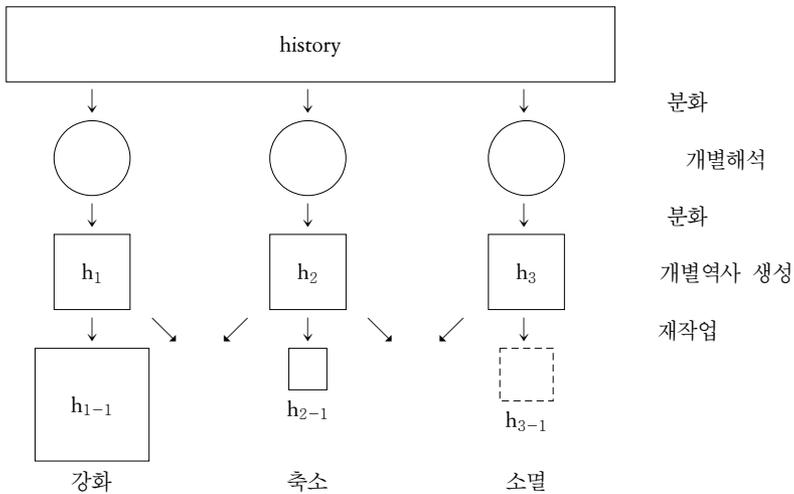
우선 집단으로 내세우는지 설명해준다.

북한 체제 형성기 김일성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도구로 군, 즉 무력을 택했는데, 김일성의 빨치산 세력은 군을 굳건히 장악하였다. 북한군의 정치훈련과정에서 강조된 내용은 김일성과 그의 항일무장투쟁 역사인데, 군을 ‘김일성의 군대’로 만들려고 했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혁명의 역사’라는 성격을 부여함으로써 김일성 우상화에 박차를 가한다. 집권층이 과거 역사를 미화하여 우상화의 물적 근거로 삼는 행위는 독재체제에서 매우 잘 나타난다. 주민에 대한 교화와 이를 기반으로 한 독재 정당화, 체제 영속화로 이어진다. 김정일정권은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상징화를 계승하여 이를 권력 승계의 공고화에 활용하였다. 북한 역사 초기에서부터 중요한 역할을 해 온 빨치산 유격대의 명성과 정신을 군부로 이음으로써¹¹⁾ 군의 역사적 정통성과 정치 참여의 정당성을 확립시켰다.

사실(事實)로서의 역사가 있다. 조선의 항일무장투쟁조직과 광복, 분단과 한국전쟁은 事實로 존재하는 역사이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기반으로 성립한 것은 사실의 역사이나 대한민국이 북한의 적화통일 대상이 된 것은 역사가의 주관에 개입된 재구성의 역사이다. 사실의 역사는 개별 사관(史觀)에 의해 분화되어 개별 역사를 생성한다. 역사가 혹은 정치가들은 이를 강화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재작업을 통해 事實을 史實로 전환시킨다. 북한은 한국전쟁(history)에서 ‘전쟁의 기억’이라는 테마(h₁)를 분리하여 전쟁의 비극을 축소(h₂₋₁)하고 북침의 책임성을 은폐(h₃₋₁)시켰다. 전쟁 자체를 비극으로 확대하지 않는 것은 전면전을 일으킨 북한정권 자신의 역사적 정당성과 정치적 책임에 대한 한계 때문이기도 하다. 전쟁을 개시한 입장에서 본다면, 역사의 책임과 가해를 드러내기 보다는 피해경험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것이 체제 내적인 통합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새롭게 형성된 전쟁의 기억은 인민들에게 적에 대한 피해와 투쟁이라는 정체성을 주입시켜 새로운 ‘집합의식(collective consciousness)’¹²⁾을 형성한다. 현재의 필

11) 김일성은 1958년 2월 군창설 10주년 기념연설에서 군은 빨치산 항일무장투쟁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958년 초 총정치국에 대한 당 중앙 검열을 기점으로 군내 사상 단속이 전개되고 군은 김일성 항일유격대의 계승자로, 창군기념은 항일 유격대 정신으로 단일화됐다. 그리고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전통이 전면에 내세워졌다. (서동만 1996, 159-193)

요에 따라 과거를 해석하고 기억하는 과정은 하나의 역사적 전통을 만든다. 만들어진 전통은 집단의 기념 행위 등을 통해 구성원들의 통일된 정체성을 형성한다. 일례로 신천박물관은 미국의 야만성을 고발하는 공식적인 역사의 場이다. 신천박물관은 혁명후속세대, 즉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들에게 반미(反美) 교양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즉 북한은 신천박물관을 통해서 피해와 투쟁이라는 관점에서 인민들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이다(정병화 2012, 81-82).



〈그림 1〉 역사의 상징조작 과정

※ 출처: 저자 작성

1990년대 경제난은 북한 내부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였는데, 그럼에도 경제 관련 구호의 숫자가 군 부문보다 적고 그 내용이 추상적이며 모호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경제위기를 극복할 만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이 부재함

- 12) 전체주의나 권위주의 체제에서 국가적 공식 기억은 공동체의 기억을 규정한다. 집합기억은 개인의 기억이 형성되는 사회적 틀로서 정체성 형성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현재는 과거의 소유물이 속에서 형성되고 개인의 기억은 사회적 틀 속에서 이루어진다. 집단의 의례와 표상 같은 상징체계는 구성원들에게 연대감을 높여서 공통의 집합의식과 행동을 갖게 한다. 또한 참여자에게 전이되는 집합의식은 동일한 의식으로 발전하여 집합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고, 고취된 의식은 집합행동으로 확산되기도 한다. (한성훈 2008, 43-45)

을 뜻한다. 또한 정치 선전으로 경제위기를 덮고자 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선군 정치는 우리시대 반제 투쟁의 위력한 무기이다”(로동신문 02/04/01)등의 슬로건을 내세움으로써 국내 경제 위기를 외부의 외교·안보 문제로 이식하는 점이 특징지을 만하다. 특히 대외 정치문제에 맞서기 위한 방편적 요소로 ‘군’을 위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부터 이어져오는 ‘반미’, ‘반제’의 상징을 교묘하게 재생산하고 있는데, 한국전쟁의 원인과 그로 인한 북한의 손실이 미국과 제국주의에서 비롯됐다고 규정한 논리를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북한 경제가 자립적 경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원인으로 다시금 이용하는 것이다. 시기상 경제를 강조하고 경제와 관련된 정책을 집행해야 하나, 오히려 북한은 ‘자력갱생’과 ‘사수’, ‘선군’ 개념을 차용함으로써 경제문제에서 외부와의 비교를 거부하고¹³⁾ 경제보다 안보 문제를 더 중요한 사안으로 상정한다. 반제가 중요한 정치적 상징으로 사용됨에 따라 북한사회에서 전투적 분위기가 일상화된다.¹⁴⁾ 경제위기의 심화가 김일성 사망과 사회주의권 붕괴에서 오는 체제위기로 영속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군을 강조한다. 외부의 적을 강조함으로써 내부 통합을 세뇌시켜 인민들이 실제 위기에서 눈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IV. 선군정치의 사상무장 효과성

정치상징은 평소보다 위기시에 효과가 더욱 크다. 상징은 그 자체로 모호하고 다의적이기 때문에 지배층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허위의 상징을 구사할 수 있

13) 대내외적인 위기가 심화되는 1980년대에 등장한 ‘우리식’이라는 개념은 일종의 ‘비교의 거부’이다. 즉, 보편적인 수준의 발전 혹은 성장의 개념을 북한체제에 적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비교나 상대적 인식을 약화시킬 경우 북한체제가 처한 위기상황도 그다지 심각하지 않게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우영 2002, 88)

14) 노동신문은 사실을 통해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지 않고 선군정치를 펼치지 않았다면 벌써 미제에 의해 새 전쟁이 터졌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로동신문 02/03/31)

며, 대중의 심리가 불안정한 위기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스며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정치의 합리성과 권위의 정당성이 부재한 북한사회에 잘 적용된다. 북한은 체제 수립기부터 다양한 상징전략을 구사해왔는데, 많은 상징전략 중 군사를 위시한 선군 개념은 위기시 상징전략의 구사를 그 어떤 북한 정치전략보다 여실히 나타내준다. 선군의 상징전략은 체제 내·외적인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항하기 위해서 이원론적 대립구도의 세계관을 동원한다. 이를 통해 선군정치의 가치체계를 완전한 진리이자 현실로 내세우고 인민들에게 불안하지 않아도 됨을 지속적으로 설파한다. 즉 ‘항시 전시체제 유지’라는 구도 설정을 통해 ①죽음에 대한 공포를 전제로 죽음을 불사한 단결을 강조하고 체제안보를 강요한다.¹⁵⁾ ②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에게 지속적으로 전쟁의 상징성을 주입하고 사회구성원의 정치적 정체성을 전쟁에 최적화되도록 형성한다. ③선군은 항일무장투쟁과 빨치산, 조선인민군의 연장선상에 있는 개념이며, 선군정치를 통해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조작된’ 기억을 물려주고 과거의 영광을 신념체계로 삼는다. 이처럼 선군정치는 북한체제의 사상무장을 위한 수단이 되고, 동시에 사상이 무장되는 과정에서 선군의 상징성이 강화된다.

1. 사상무장 강화기제로서의 선군정치

선군은 단순히 군을 중시하는 정치 전략이 아니라, 북한 지배권력의 일인독재를 정당화하는 상징전략이다. 선군이라는 상징을 통해 피지배층에게 국방의 중요성과 국가 안위, 국민 보호라는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이면에 숨겨진 의도를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중을 동원하고 집단 전체의 응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아우르는 특정 이데올로기가 필요한데, 북한의 경우 ‘서방’과 ‘자본주의 세력’, ‘제국주의 세력’ 등을 외부의 적으로 상징하고 이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논리를 설정한다. 이때 군(軍)이 그 주체 세력이 된다. 특히 제국주의자

15) 선군의 ‘혁명적 군인정신’은 단순히 군대의 싸움정신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한 총대정신이며 이에 따라 북한 혁명정신의 최고높이로 오른다. (로동신문, 02/09/29)

들의 힘의 정책과 전쟁전략은 오직 막강한 군력을 통해서만 극복 가능하며, 선군 정치는 일시적인 방편이 아니라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정치방식”(전덕성 2004, 15; 조선로동당출판사 2006, 234-247)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선군정치의 인식체계를 넓혔다.

한편 북한 역사를 살펴보면 북한체제가 군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해할 수 있다. 김일성은 무력을 움켜쥐으로써 당과 정을 장악할 수 있었다. 무력의 장악은 체제 형성기 권력의 원심을 확보하는 방법이 된다. 이후 확보한 원심적 권력을 확장해나가는 다양한 전략을 취하며 권력을 공고히 다지는 것이다. 북한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지도자가 군을 직접 통제하는 방식을 관철해왔다. 이는 북한 정권 수립 초창기와 김일성-김정일 승계기에서 명백히 나타난다. 조선인민군은 제도에 토대를 두고 형성된 군대가 아닌, 수령 중심의 일인독재를 정당화하는 주관적 통제의 차원에서 성립되었다. 각종 종파 숙청과 반대파 제거, 군 내부 인사 처단 등은 ‘개인의 통제에 의한, 개인을 위해 존재한 군대’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1960년대 대대적인 숙청 역시 ‘군을 한 개인의 군대가 아닌 전문성을 가지고 중립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반대파의 논리에 대한 견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군을 확보하는 실질적 방법은 권위주의체제, 폐쇄형 국가에서 유용하게 쓰인다. 스탈린은 체제 형성에 군대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레닌과 트로츠키가 세계에서 가장 큰 대규모의 정규군을 창설하였다면, 스탈린은 이를 끊임없이 증가시켰고, 소련군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군대로 남게 되었다. 소련이 대규모의 군사력을 필요로 한 이유 중 하나는 군사력을 통해 공산주의체제를 건설하기 위함이었다(가브릴 코로트코프 1992, 87). 북한체제에서도 역시 군은 체제 형성을 위한 전략적 수단이자 권력 강화를 위한 정치 노선의 하나로 작동하였으며, 김정일시대 이르러 권력 세습의 정당성을 얻게 해준 장치가 된다.

당-군 관계 및 정치구조 변동에 따른 조선인민군의 위상 변화가 군과 당이 갈등구조 속에서 각자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독립된 세력이라는 시각보다는 김일성 시대부터 자리 잡아 온 북한 정치의 기틀이라는 관점이 선군사상에 적합할 것이다. 군은 김일성-김정일정권이 체제 도전세력으로부터 절대 권력을 보위하기 위

한 수단이자 수령의 절대 권력을 단단하기 굳히기 위한 장치이다. 즉, 선군정치 는 북한정치사의 뿌리에서 나온 한 줄기로 수령유일지도체제를 지탱해 주는 정치적 자산이 된다.

2. 선군정치 강화기제로서의 사상무장

북한군의 정치훈련은 김일성의 민족해방운동과 해방 후 건당·건국의 정당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이라는 역사는 북한군 사상무장을 위한 기본 교육자료가 되었고, 동시에 이러한 역사를 북한 건당·건국의 토대로 상징화함으로써 북한정권에서 군이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질 수 있었다.

<그림 1>의 도식을 적용해보면, 한국전쟁(h)에서 분화된 전쟁의 기억(h_1)은 북한 지배권력에 의해 강화(h_{1-1})되어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은 체제 결속력을 높이는 데 활용되며, 이때 적(제국주의·자본주의)과 대립하는 사회주의 세력의 주축으로서 위상을 구축할 수 있다. 사회 전체를 군사주의로 물들이는 것은 공동체를 조직적으로 결합시키며 인민들이 최고지도자에게 귀속되는 안정감을 부여해 자발적인 복종을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북한은 안보 위협에서 벗어나고 남조선 해방의 혁명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수령에 의한 지배체제를 따를 것을 인민에게 세뇌한다. 체제를 보위하는 사상인 ‘수령론’을 강조할수록 수령의 역사(항일무장투쟁)와 수령의 조직(인민군), 수령의 제도(선군정치)는 강화된다. 사회 내에 군대식 규범과 규율을 침투시키고 인민들이 이를 자발적이고 충실히 이행하게 하는 유인이 되는 것이다.

1980년대 후반 미·소 관계 개선과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소련 해체 등 90년대 초반 동구권 사회주의 몰락은 북한에 체제 위협 요소로 다가왔고, 김정일은 내부의 불안을 군사력 강화로 잠식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 군부가 북한 정치의 중심에 있으며 체제유지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정치논리를 통해 북한군 및 북한사회 전체의 사기를 고양하고자 했다. 김정일은 집권 전 항일유격대 시절의 김일성이 제시하였던 군사사상의 탁월함을 칭송하고 이를 익혀 군이 무장해 나갈 것을 언급하였다(김정일 2009, 328-333). 군대 내 유일사상체

계를 구축하는 노력을 기한 것이다. 또한 각종 담화에서는 군인의 임무와 그 중요성, 군인을 혁명전사로 키우는 것을 강조하였다(김정일 2009, 334-335). 이러한 작업은 집권 후 선군사상을 통치이념으로 공식화하는 데 토대가 되었으며, 자주 국방, 자력갱생의 사상무장은 군을 국가의 주축으로 세우고 체제 유지의 핵심 수단으로 삼는 논리의 중심이 되었다. 인민 사상교육의 기본을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삼은 것은 전 인민의 사상체계가 군사 측면에서 이뤄지고 이것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다시 선군 논리가 강화되는 순환과정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여전히 국방비용에 많은 지출을 하는 이유,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전력의 증강에 힘을 쏟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V. 나오며

선군정치는 국내외 정치 환경의 영향으로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그럼에도 북한은 先軍으로 수렴하는 국방 정책의 방향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이는 김정은 정권의 정책기조와 현지도에서 잘 나타난다. 김정은정권은 김정일정권의 권력 승계과정에서의 ‘선군’ 정립 과정의 초기단계를 밟고 있다. 김정일이 ‘주체’의 정치를 ‘김일성주의’로 격상시킨 것처럼 김정은은 ‘선군’의 정치를 ‘김정일주의’로 순수 이데올로기화하고 ‘전과 다른’ 상징언어로 ‘새로운’ 정치담론을 펼쳤다. 표면적인 변화, 즉 정치언어만 바뀐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다.

제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은 6차 당대회가 열린 198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36년을 ‘총결기간’으로 칭하고, 이 기간을 ‘주체사상, 선군정치의 위대한 승리’로 규정하였다. 또한 1990년대 중반 위기 극복의 가장 큰 공적을 김정일의 선군정치로 돌렸다. “군사를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주력군으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에 의거하여 사회주의 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는 김정일 동지식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로동신문 16/05/09)이라고 선군정치를 정의하며 당의 군사중시, 군사선행 원칙에 따라 국방공업 발전에 집중

해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김정은 집권 이후 현지도도 경향을 살펴보면 군 부문 빈도수가 매년 30% 이상을 차지하는데(배영애 2015, 140), 이는 김정은정권에서 군사주의 정책이 여전히 북한의 주요한 정책노선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특정 공간에 대한 현지도도는 지도자와 해당 공간에 상주하는 객체가 공유하는 현실 속에서 서로 통합되는 기능을 제공하고 최고지도자가 획득한 권력의 정통성·정당성을 널리 알리고 공고히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군 부문 장소에 적용해보면, 높은 비율의 김정은 군 현지도는 군 내 객체, 즉 군인들과 공동의 기억을 공유함으로써 그들의 지지와 신뢰를 확보케 하는 도구가 된다. 최고지도자가 가지는 권위를 보여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북한은 위기를 전략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선군정치’라는 정치언어를 확립하였다. 국가를 운영하는 데 현재와 미래의 가치에 중점을 두지 않고 과거의 영광을 상징적으로 과시, 사상무장을 선동하였다. 세계경제와 단절되고 안보환경이 취약한 약소국이 자립경제와 자주국방을 건설한다는 목표는 성취하기 어려운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인민들은 동원과 희생에 허덕여야 한다. 이처럼 북한정권의 ‘자주적 운명’을 달성하기 위한 강압과 동의의 기제로 군사주의가 지속적으로 확대·유지되고 있다.

북한의 상징전략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조작으로 덧칠된 역사와 신화, 제도들이 정당성이 없는 허구적인 것임에도 여전히 실효성 있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징이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징체계는 유효하게 작동한다. 그 이유는 상징이 사회구성원들에게 심리적·사회적 만족감을 제공해주며, 그 만족감 이면의 가치체계는 위협한 외부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는 믿음이 살아 숨쉬기 때문이다. 정치상징은 인간의 불만족을 잠재울 뿐만 아니라 정신적 측면을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 조지 오웰(George Orwell)의 『1984』에서처럼 북한 인민들은 체제의 거대한 상징조작에 일상이 노출된 채 살아간다. 그들은 상징을 직시하고 있지만 그것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강력한지 알지 못하며, 자신들이 상징에 얼마나 종속되어 있는지 자각하지 못한다. 북한 인민의 터전은 진실이 부재한 허공에 부유하는 삶과 같고 상징조작은 그 속에서 여전히 강렬하게 작동하고 있다.

북한의 거대한 텔레스크린이 붕괴할 것이라고 보는 예측이 존재한다. 혹은 적어도 균열의 조짐이 예상된다는 시각도 많다. 접경 지역을 통해 유입되는 한류와 서방의 물품, 문화들이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북한 내 휴대폰 사용 인구가 급증했다는 사실도 덧붙일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압박하는 인권문제도 한 몫한다. 이 모든 요인들을 고려하면 북한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예측이 적중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북한체제는 여전히 그 생명력을 보여준다. 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보여준 태도, 그의 말, 정치용어 등은 북한정권이 과거로 회귀하고 있음을 증명하며 이러한 양상은 사회 전반에 적용되고 있다. 김일성 시기에서 이어져 온 군사주의는 김정일대에 헌법으로 공식화되었고 김정은 정권은 이를 김정일주의로 지도이념화하면서 지위를 격상시켰다. 군 등의 대민통제기구는 충성맹세를 통해 집권 5년차의 어린 최고지도자에 대한 복종을 공식화하였고, 조선노동당이 이룩한 성과로써 선군혁명노선과 자위의 군사노선을 관철하여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발전시킨 것을 들었다. 수령과 군은 상호 이해관계를 더욱 내밀하게 조이며 서로가 서로를 합리화시키는 정치군사의 작동원리를 여전히 드러내고 있다.

무너질 듯 무너지지 않는 북한사회의 힘이 여기에 있다. 북한의 세습과 독재는 외부에서 봤을 때 옳지 않은 것, 따라서 사라져야 할 것으로 규정되나, 내부에서는 그러한 시스템 자체가 하나의 안정된 구조로 존재한다. 굶주린 북한 주민들이 혁명을 감행하지 않는 이유, 당·군 엘리트 계층이 기득권력의 공간에서 이탈하지 않는 이유, 탈북민이 여전히 김일성을 찬양하는 이유는 북한이 초기부터 내밀하고 견고하게 쌓아올린 상징체계들이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는 증거인 동시에 북한사회 상징과 감시기제로 촘촘히 엮여있음을 의미한다. 김정은정권 들어 세 차례나 실시된 핵 실험, 특히 9월의 5차 실험은 이전과 달리 핵탄두폭발실험이라는 기술의 진전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집권 직후부터 계속해 온 탄도 미사일(2012 은하3호, 2016 광명성호) 발사는 김정은정권이 핵과 과학기술을 대내외 정책의 주요 위협·상징·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핵 및 이하 무기체계에 대한 강한 집착은 그것을 실제로 당장 사용하겠다는 의미보다는 무장력 강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공포정치와 경제문제로 내면이 약해진 인민들에게 지도자의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외부적으로는 체제 존속의 가능성을 과시하는 것이다.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이번

7차 당대회를 통해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 보일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가 예고했던 ‘휘황한 설계도’는 북한체제가 지속적으로 생산해 온 수사의 상징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이름만 바뀐 군사주의를 표방하는 것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참고문헌

- 가브리엘 코로트코프(Gavrill Korotkov) 저. 이건주 역. 1992. 『김일성과 스탈린』. 서울: 동아일보사.
- 김성주. 2015. “1960년대 북한의 군사주의 확산 과정 연구.” 『현대북한연구』 제18권 제2호.
- 김일성. 1981. 『김일성저작집』 제1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정일. 2009. 『김정일선집』 제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로동신문』. 1997년 12월 12일; 1998년 5월 26일; 1999년 6월 16일; 2000년 1월 1일; 2001년 12월 15일; 2002년 3월 20일; 2002년 3월 31일; 2002년 4월 1일; 2002년 7월 31일; 2002년 9월 29일; 2003년 3월 21일; 2004년 2월 19일; 2006년 8월 25일; 2016년 5월 9일.
- 문재윤. 2008. “조선조 정치적 상징조작에 관한 소고.”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박계리. 2011. “백두산: 만들어진 전통과 표상.” 『미술사학』 제36집.
- 박원용. 2013. “‘개인’과 ‘집단’의 변증법: 1930년대 스탈린 체제의 신체문화 이미지를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제36집.
- 배영애. 2015. “김정은 현지지도의 특성 연구.” 『통일전략』 제15권 제4호.
-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1992. 『조선말대사전』 제1권.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서동만. 1996. “북한 당군관계의 역사적 형성: 한국전쟁이후부터 1961년 전후 시기까지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26호.
- 서유석. 2008. “북한 통치담론의 재생과정에 관한 연구.” 『북한학연구』 제4권 제1호.
- 신광민. 2003. 『북한 정치사회화 과정에서의 군의 역할』.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완중. 2010. “스탈린 체제와 상징: 선전-선동의 아이콘.” 『아시아문화연구』 제19집.
- 이우영. 2002. 『북한사회의 상징체계 연구: 혁명구호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 이종철. 2011. “선군정치 하(下) 군 엘리트(Elite) ‘파워(Power)’ 고찰.” 『동아연구』 제60권.
- 이준삼. 2016. “<北당대회> 평양시내 공장에 이미 ‘김정은 시대’ 표어 등장.” 『연합뉴스』 (5월 6일)
- 전덕성. 2004. 『선군정치에 대한 이해』. 평양: 평양출판사.
- 정병화. 2012. “‘관성적 권력’으로서의 ‘선군정치’.” 『대한정치학회보』 20집 2호.
- 정호기. 2000. “5·18과 도시공간의 상징적 구성.” 『공간과사회』 통권 제14호.
- 조선로동당출판사. 2006. 『우리 당의 선군정치』.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중앙방송』. 1997년 10월 7일.

조현수. 2010. “상징과 정치: 민주주의체제와 전체주의체제의 상징에 대한 비교분석.” 『한국정치연구』 제19집 제3호.

한성훈. 2008. “기념물을 둘러싼 기억의 정치와 집단 정체성: 거창사건의 위령비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제78집.

Lim, Jae-Cheon. 2015. *Leader Symbols and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The leader state*. New York: Routledge.

Michael T. Klare. 1980. “Militarism: The Issues Today.” *Problems of Contemporary Militarism*. New York: ST. Martin's Press.

투고일: 2016.08.31.	심사일: 2016.09.09.	게재확정일: 2016.10.10.
------------------	------------------	--------------------

North Korean Symbolic Strategy As Thought Armament Means: Focusing on Military First Politics

Kwak EunKyung | Defence agency for Spiritual and Mental Force Enhancement

The hereditary dictatorship in North Korean regime has continued for nearly 70 years. What is the source of durability of North Korean system ‘without any misadventure.’ Symbolic manipulation has been performed routinely in North Korean society. And the politicization of symbolism can easily secure the legitimacy of political power and maximize the support of community members. This study was drawn the performance mechanism that form and maintain the North Korean regime, also pass on and strengthen the Kim's power from their symbolic politics, strategy, and subordinate political discourse. The ‘Songun(Military First)’ of various symbolic strategies in North Korea is the very strategy to get rid of anxiety at the gate by mobilizing the dualistic conflict composition. Songun value system is utilized as a means to prevent harmful external thing and promote internal unity. This context often appeared in other totalitarian regimes such as a concept ‘Volksgenosse’ and ‘Volksfremde’ in Nazism based on the dichotomous hierarchy. Songun is not a strategy confined to Kim Jong Il era. It constitutes a stream of North Korean revolutionary traditions—Kim Il Sung's anti-Japanese armed struggle— and is also reproduced in Kim Jong Un era. This study analyzed that how Songun manifest, function and enhance as a symbolic strategy to solidarize the system and arm the people's thought. Ultimately, it would be gain an insight into factors that North Korea does not collapse seemed to crumble through Songun symbol.

Key Words | SYMBOLIC POLITICS, SYMBOLIC STRATEGY, THOUGHT ARMAMENT MEANS, MILITARY FIRST POLITICS, SONGUN, SYMBOLIC MANIPULATION